

# 자기 이미지 ('함께한 계절' 사진책에 대한 평론)

김신식

1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의 『나이 없는 시간』엔 “자기 이미지”라는 용어가 나온다. 자기 이미지를 통해 사람은 자신이 무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누군가 당신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달라고 한다. 당신은 흔쾌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태껏 무거운 물건을 거뜰히 들었던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는다. 하지만 자기 이미지는 본인의 현 상태를 부정할 때도 쓰인다.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 들어올 때, 행여 무시당할까봐 당신은 쇠약해진 몸의 사정을 무시하고 요청에 응한다. 이 때 자기 이미지란 당신의 현재 대신 무엇이든 가능했던 지난날과 점착되어 있다.

신정식 작가의 『함께한 계절』을 보면서 ‘자기 이미지’란 용어부터 언급한 까닭.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시간의 속성과 마냥 연결시켰을 때, 망각이 가속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시간-기억-추억의 차원으로 쉬이 요약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집에서 눈여겨보고 싶었던 점은 (망각의 시간성 보단) 망각의 ‘시각성’이었다. 이는 시간의 속성과 시각의 속성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작가는 알츠하이머를 겪는 아버지의 모습을 조망하는 가운데, 무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서 시각과 시기를 호출하고 열거하는 기록으로 일관하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무얼 ‘알아보지 못함’에서 기인한 어느 존재의 시선, 시점, 시야를 비중 있게 언급한다.

2

작가의 증언에 따르자면, 아버지는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이다. 식사를 할 때마다 당신의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작가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회를 소주에 찍어 드셨고” “소주는 숟가락으로 떠서 마셨”다. 하루 중 대부분 TV를 보지만 무슨 내용인지 자막도 읽어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이 작가가 글로 담아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카메라에 담긴 아버지의 모습은 글말과 사뭇 동떨어져있다. 작가의 노트가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되어 당신과 난 작가의 아버지에게 탄식과 우려, 연민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떨어진 사진에 작가의 글말을 덧입혀서. 허나 작가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주 까먹는 존재에 대한 초상을 통해 당신과 날 먹먹함의 지대로 끌고 오려 하진 않는다.

내가 사진집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던 대목은 기억력을 능숙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아버지로만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태도였다. 외려 작가는 시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며, 보는 이에게 아버지의 자기 이미지를 상상할 기회를 준다. 과연 작가의 아버지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감추고자 마음속에 무엇이든 가능했던 시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 작가의 아버지에게 자기 이미지가 깃든다는 건 가능할까.

3

작가의 글이 자칫 카메라로 재현된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압도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던 찰나. 나는 아버지의 모습 옆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자기 이미지를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보았다. 작가가 사진에 아버지의 아픔과 퇴락을 선명히 제시하지 않은 덕분에, 나는 아버지의 모습 옆에 쾌활하고 건강하다고 규정된 자기 이미지를 간편히 부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자기 이미지에 유명이란 이름을 붙여 그 의미를 뭉뚱그리고 싶진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윤곽만 떼서 만들어진 한 인간의 자기 이미지를 유럽풍의 모노톤 만화처럼 상상해보았다. 나는 상상해본 작가 아버지의 자기 이미지와 더불어 작가, 작가의 아버지와 계절을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사진집을 살펴나갔다.

두 사람의 여정을 내가 보고 싶은 치병일기로 유형화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채 광활한 바다를 유영하는 작가와 아버지를 상상했다. 『함께한 계절』을 보면서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시간들이 뚱뚱 떠다닌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정식 작가는 아버지와 자신의 시간들을 기록해내고 있지만, 명시된 시간과 시기에 내가 초대받아 앉아있단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는 사진집을 통해 두 사람과 표류하는 듯했다. 누군갈 향한 구멍과 구조,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말을 아끼는 사진집으로 말미암아 시간에 내 몸을 맡기는 표류가 싫지 않았다.

#### 4

나는 부자父子가 함께한 어느 순간에 머물러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맛깔나게 중계하려는 욕심과 멀어지고 싶었다. 그건 아마도 『함께한 계절』이 인간의 고통·질병을 재료 삼아 인간이 감내해야 할 시간에 대한 경외심을 알파히 운운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사진집 내 타임라인엔 특정한 시간을 향한 붕괴에도 축조에도 관심 없는 어떤 시간성만이 떠다닐 뿐이다.

덕분에 나는 두 사람의 여행에 함께한다는 뭉클함 대신 두 사람이 갈수록 자신들의 시간성 속으로 고립되어가는 듯한 지점을 응원하게 됐다. 사람들이 질병의 이미지, 노년의 이미지, 가족의 이미지를 앞세워 두 사람에게 구멍조끼를 던지려 할 때, 외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두 사람이 본인만의 튜브를 쓰고 지도에 없는 바다로 뚱뚱 떠다니는 장면을 떠올려본다.

#### 5

난 상실도 회복도 부재도 퇴적도, 더 나아가 시간의 무위無爲마저도 함께하지 않은 계절을 그려본다. 두 사람이 함께한 계절로 인해.